

2019 한국FP학회 춘계세미나

인구구조변화와 세대별 재무설계 및 관련산업변화

| 일시 | 2019년 4월 17일(수) 오후 2:00~5:30

| 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12층 강당

| 주최 | 한국FP학회

| 후원 | 매일경제신문, 한국예탁결제원, KB증권, 한국FPSB

한국FP
Korean Academic Society of
Financial Planning 학회

| 행사일정 |

2:00-2:20	등록	
2:20-2:30	개회식	사회 김성태 (동의대 교수) 환영사 박광수 (동의대 교수, 한국FP학회장) 축사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30-3:30	특강	우리나라 인구구조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조영태 (서울대 교수)
3:30-3:50	휴식	
3:50-4:40	발제	인구구조변화와 세대별 재무설계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 인구구조변화와 보험산업변화 김세중 (보험연구원)
4:40~5:30	토론 및 질의응답	좌장 최현자 (서울대 교수) 성영애 (인천대 교수) 송수영 (중앙대 교수) 윤경호 (매일경제신문사 논설위원) 이준호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장)
5:30	폐회	

Contents

- **우리나라 인구구조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1**
 - 조영태 (서울대 교수)

- **인구구조변화와 세대별 재무설계 7**
 -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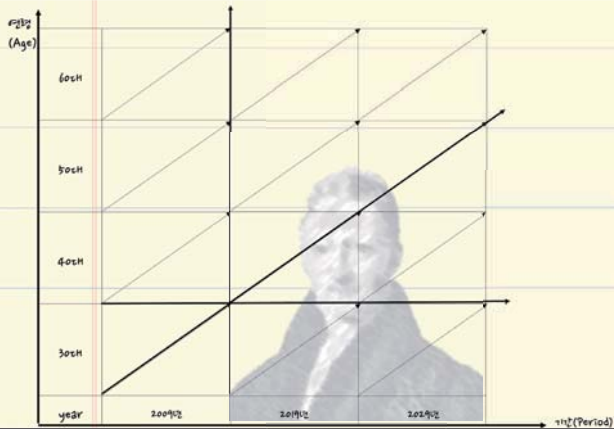
- **인구구조변화와 보험산업변화 25**
 - 김세중 (보험연구원)

우리나라 인구구조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조영태 (서울대 교수)

정해진 미래 시장의 기회

우리나라 인구구조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조영태

서울대학교 교수, 인구학
베트남정부 인구정책자문

2025년
대한민국의 시장

예측이 가능한가?

저출산, 고령화
내 인생 / 사회에

정말로 큰 영향을
주었나?

왜 인구가 중요한가

- > **시장**(재화, 노동, 금융 등)의 가장 중요한 Player
- > 거의 정확한 **미래 예측**이 가능함 → 중장기 전략 수립 필수 요소
- > 어느 국가/사회에도 적용 가능함 → **해외 진출 전략** 수립에 절대적 도움



[초저출산]	[비혼]	[만혼]
여성 1명 평균 1.0명 자녀 낳기	40-44세 미혼 비율(2015)	초혼 연령
연평균 20만 명대 출산	전 국> 남성: 22%, 여성: 11%	(여성 30.2세, 남성 33세)
	서울시> 남성: 26%, 여성: 18%	서울(31.2세, 33.4세)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인구 현상		
[가구의 축소]	[수명 연장]	[인구의 도시 집중]
서울시 4인 가구	백세인증가추세	전국도시인구
2000년: 32% 2010년: 20%	2000년: 934명, 2005년: 961명	82% (20-54세: 85%)
2020년: 15% 2025년: 12%	2010년: 1836명, 2015년: 3159명	20-49세수도권인구: 52%

대한민국 미래 연표 (조선일보 2018년 3월 26일자 1면, 2019년 인구학연구실 수정)					
2020년	2021년	2021년	2023년	2025년	
예상 출생아 수	61년생 은퇴자 수	80세 인구	18세 인구	25~44세 인구, 혼인 건수	
29만명	89만명 육박	약 200만명 돌파	고작 42만명	고작 20만 건	
> 영·유아 시장 비상.	> 교육 수준 높은 세대	> 진정한 '실버산업' 가능.	> 대학가기가 제일 쉬웠어요!	> 2015년 약 26만 건	
> 시장 규모	> 창업 인구 급증 예상	> 동시에 사회부담가중	> 그런데 지방대학이요!	> 혼인 건수의 감소는 부동산,	
2016년(40만6000명)	> 은퇴연령 조정논의			가전, 자동차 등 사회 전반에 영향	
대비 70% 수준					
2027년	2028년	2030년	2035년	2038년	2040년
큰손 고객	90대 인구	생산과 소비 시작인	> 여성 3명중 1명이	> 인구 4명 중 1명	대한민국 인구
'50대 사모님'	61만명 돌파	20대 인구	65세 이상인	70세 넘어	4700만!!!
고령화로	> 2018년 19만 명	450만명으로	'할머니 전성시대'	사회 보장 비용	
지방 백화점 중심의		> 2018년 650만 명			
상권 몰락 시작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할까?

1. 판단의 기준을 **미래**로 놓자

2. **인구 변동(메가트렌드)**에 관심을 갖자 !

3. **소비의 관성**에 주목해라 !

정해진 미래

→
시장의 기회는
무한(無限)하다

인구구조변화와 세대별 재무설계

차경욱 (성신여대 교수)

인구구조변화와 세대별 재무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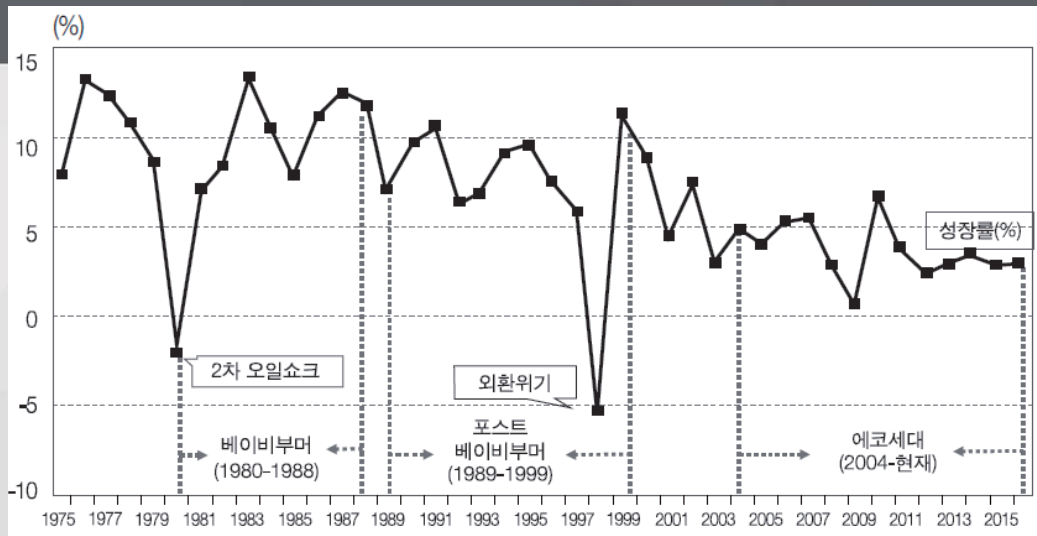
성신여대 차경욱
(kwcha@sungshin.ac.kr)

세대 (Generation)

동시대에 출생하여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는 출생 코호트 (Kertzer, 1983)
동일한 역사, 문화권을 가진 공동운명체 (Manheim, 1997)



세대별 사회진출시기(25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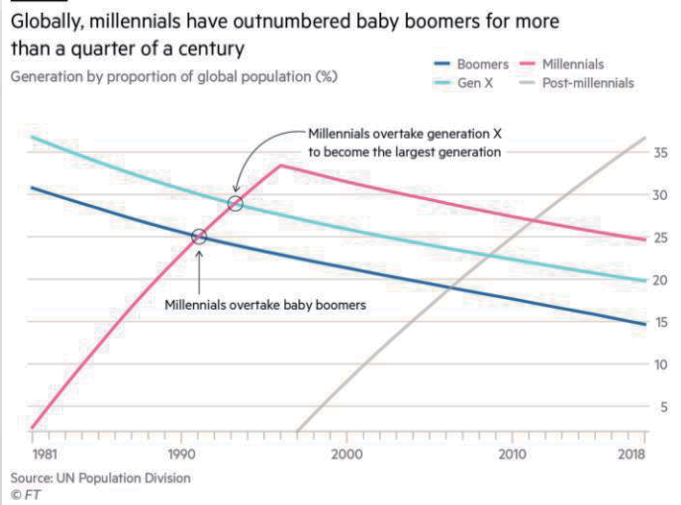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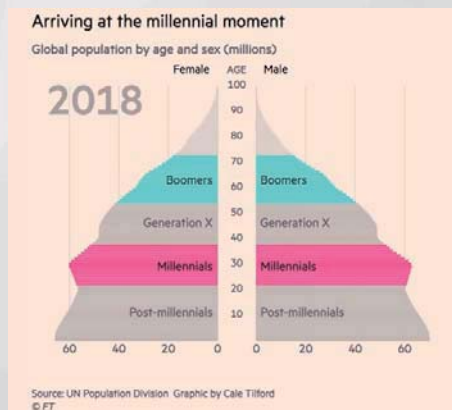


출처: 조현승 외(2017). 우리나라 각 세대의 특징 및 소비구조분석 - 포스트베이비부머를 중심으로.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2017-8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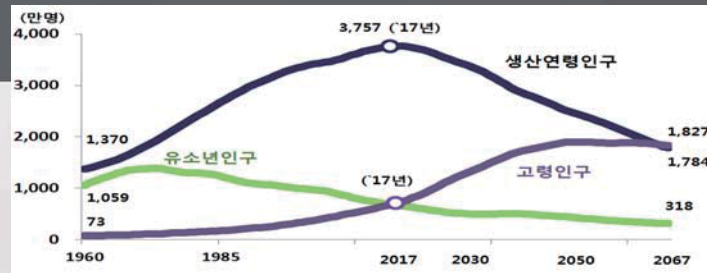
The Millennial Moment

Financial Times, "The Millennial Moment - in Cha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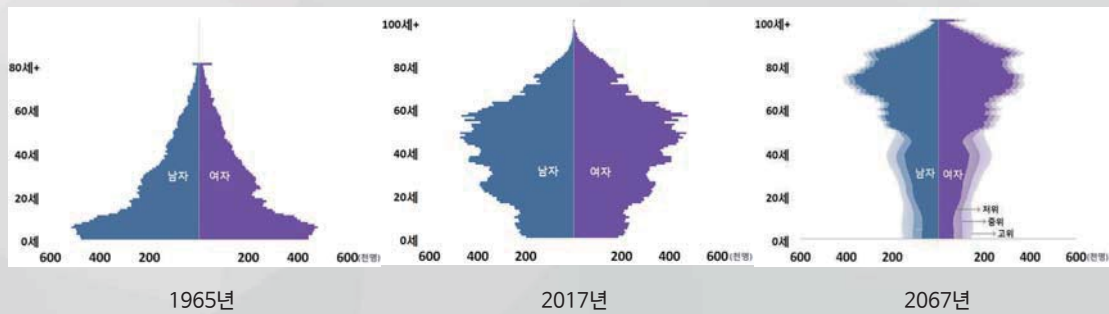
<https://www.ft.com/content/f81ac17a-68ae-11e8-b6eb-4acfcfb08c11>



인구구조 변화



인구피라미드



출처: 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년. 통계청 (2019.3.28 보도자료)

세대별 재무상태 비교 (2017·2018년 기준)

세대별 가계자산 비교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단위: 만원)

구분	후기 밀레니얼세대 (n=264)	전기 밀레니얼세대 (n=1,650)	X세대 (n=2,309)	386세대 (n=2,956)	베이비붐세대 (n=4,044)	F
총자산	8,069 a	25,136 b	44,363 c	45,523 c	50,223 c	57.8***
금융자산	4,220 a	9,732 b	12,571 c	12,491 c	11,988 c	14.9***
저축액	1,815 a	4,772 b	9,005 c	9,895 c	10,437 c	42.7***
적립 및 예치식저축	1,704 a	4,487 b	8,439 c	9,194 c	9,744 c	40.9***
기타저축	112 a	285 ab	566 bc	702 c	693 c	5.3***
전월세보증금	2,405 b	4,960 d	3,566 c	2,596 b	1,551 a	56.4***
실물자산	3,848 a	15,404 b	31,791 c	33,032 cd	38,234 d	59.1***
부동산	3,282 a	13,637 b	29,272 c	30,615 cd	35,671 d	58.0***
거주주택	1,775 a	9,552 b	17,248 c	17,141 c	17,635 c	63.4***
거주주택이외 부동산	1,507 a	4,085 a	12,024 b	13,474 b	18,036 c	30.0***
기타실물자산	566 a	1,767 b	2,520 c	2,417 c	2,564 c	10.0***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p < .001

세대별 가계부채 및 순자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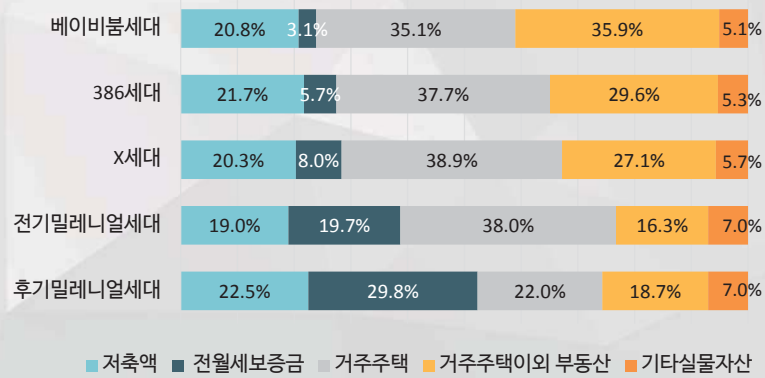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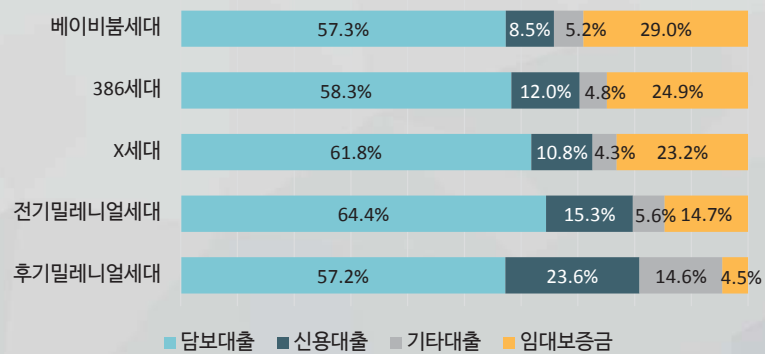
구분	후기 밀레니얼세대 (n=264)	전기 밀레니얼세대 (n=1,650)	X세대 (n=2,309)	386세대 (n=2,956)	베이비붐세대 (n=4,044)	F
총부채	1,874 a	6,628 b	9,372 c	8,674 bc	8,287 bc	9.6***
금융부채	1,789 a	5,654 b	7,200 b	6,514 b	5,881 b	7.3***
담보대출	1,072 a	4,268 b	5,791 b	5,055 b	4,748 b	6.3***
신용대출	443 a	1,013 b	1,011 b	1,043 b	702 ab	6.3***
신용카드관련대출	28 a	34 a	74 b	79 b	57 ab	4.8***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	157	192	172	164	130	1.5
기타대출	89	146	153	173	244	0.8
임대보증금	85 a	974 b	2,171 c	2,160 c	2,406 c	9.8***
순자산	6,194 a	18,508 b	34,991 c	36,849 c	41,936 d	70.7***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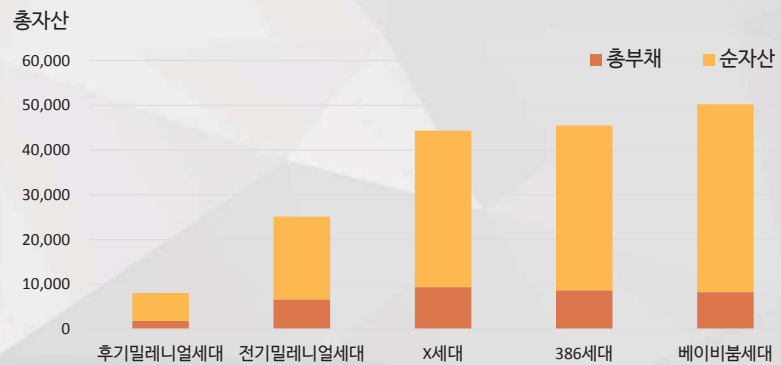
세대별 자산구성비



세대별 부채구성비



세대별 자산·부채규모



(단위: %, 만원)

구분	후기 밀레니얼세대	전기 밀레니얼세대	X세대	386세대	베이비부 세대
부채가구비율	42.4	71.5	73.5	71.2	65.0
평균	4,417	9,267	12,571	12,186	12,751
중위수	2,000	5,950	6,000	5,500	4,707

세대별 부채보유가구 비율 및 부채액

세대별 부채부담지표 : 총부채/총자산

구분	후기 밀레니얼세대	전기 밀레니얼세대	X세대	386세대	베이비부 세대
전체가구	23.2%	26.4%	21.1%	19.1%	16.5%
부채보유가구	54.7%	36.9%	28.3%	26.8%	25.4%

세대별 가계소득 비교

2017년 가계동향조사: 소득부문(통계청)

(단위: 천원, 월평균)

구분	후기 밀레니얼세대 (n=144)	전기 밀레니얼세대 (n=873)	X세대 (n=1,647)	386세대 (n=1,776)	베이비붐세대 (n=2,363)	F
총소득	1,857 a	3,988 b	4,658 c	4,906 c	4,066 b	57.6***
경상소득	1,835 a	3,861 b	4,538 c	4,790 c	3,922 b	60.7***
근로소득	1,268 a	2,983 bc	3,223 cd	3,489 d	2,665 b	31.2***
사업소득	203 a	567 b	944 c	1,006 c	859 c	15.0***
재산소득	-	5 a	10 ab	7 a	22 b	6.4***
이전소득	363 b	306 a	361 b	288 a	377 b	4.6***
비경상소득	22	127	120	117	143	1.4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p < .001

세대별 가계지출 비교

2017년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통계청)

(단위: 천원, 월평균)

구분	후기 밀레니얼세대 (n=397)	전기 밀레니얼세대 (n=997)	X세대 (n=1,259)	386세대 (n=1,580)	베이비붐세대 (n=2,280)	F
가계지출	1,650 a	3,332 b	4,169 c	4,410 c	3,442 b	139.5***
소비지출	1,498 a	2,655 b	3,224 c	3,264 c	2,564 b	112.5***
비소비지출	152 a	677 b	945 c	1,145 d	877 c	113.8***
세금	22 a	143 b	194 c	235 d	160 b	32.0***
연금·사회보험료	74 a	263 b	314 c	328 c	243 b	106.2***
이자비용	13 a	63 b	98 c	89 c	57 b	29.6***
이전지출	43 a	209 b	339 c	493 e	417 d	93.1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p < .001

세대별 소비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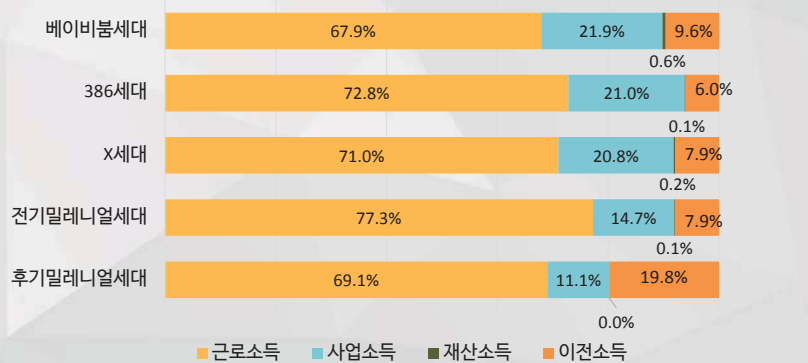
2017년 가계동향조사: 지출부문(통계청)

(단위: 천원, 월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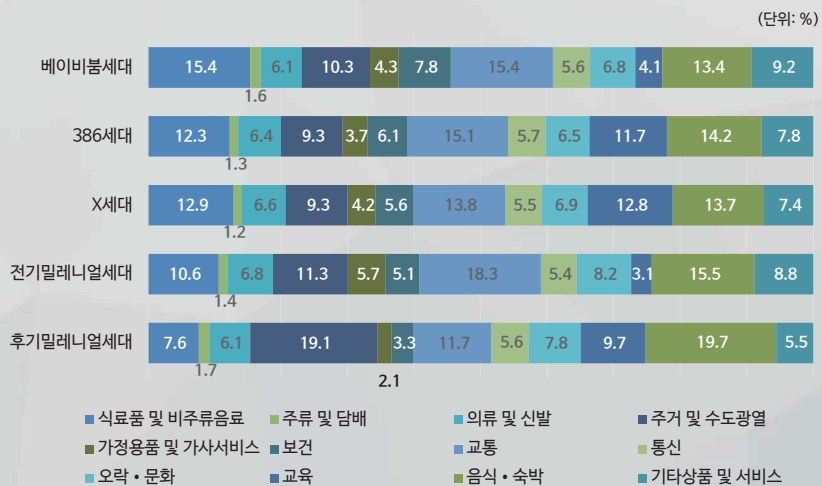
구분	후기 밀레니얼세대 (n=397)	전기 밀레니얼세대 (n=997)	X세대 (n=1,259)	386세대 (n=1,580)	베이비붐세대 (n=2,280)	F
소비지출	1,498 a	2,655 b	3,224 c	3,264 c	2,564 b	112.5***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14 a	283 b	415 c	401 c	394 c	168.5***
주류 및 담배	25 a	36 b	40 b	41 b	41 b	6.7***
의류 및 신발	91 a	180 c	211 d	210 d	157 b	28.3***
주거 및 수도광열	287 b	299 b	301 b	303 b	264 a	8.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2 a	150 d	135 cd	121 bc	111 b	31.3***
보건	50 a	136 b	181 c	199 c	201 c	22.1***
교통	175 a	485 c	446 bc	493 c	394 b	15.7***
통신	84 a	142 b	177 c	186 c	143 b	100.5***
오락·문화	117 a	218 c	223 c	212 c	174 b	21.4***
교육	145 b	82 a	413 c	381 c	104 a	249.6***
음식·숙박	295 a	411 c	443 d	464 d	345 b	57.8***
기타상품 및 서비스	83 a	234 b	238 b	253 b	236 b	29.7***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같은 문자로 표기된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음. ***p < .001

세대별 경상소득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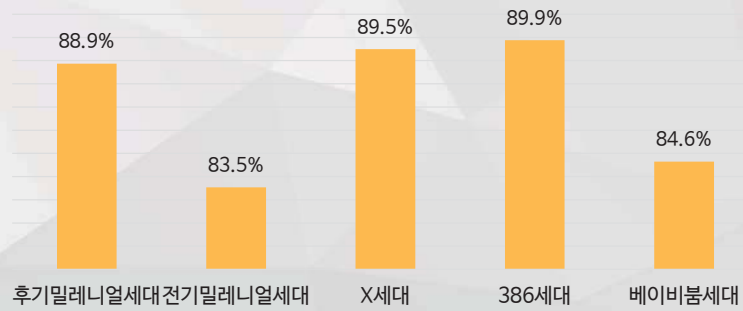
세대별 소비지출 구성비



세대별
가계수지표
: 총지출/총소득

[참고]

2016년
가계동향조사
(조사 개편전)



	2030대	4050대	60대 이상
(변동지출+고정지출) /가계소득	79.5%	82.5%	71.8%

‘그때’와 지금의
재무상태 비교
: 베이비붐세대·X세대가
밀레니얼세대 연령이었을 때

베이비붐세대가 전기밀레니얼세대 연령이었을 때: 소득 비교

1991년 가계동향조사 vs. 2017년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단위: 원, 월평균)

구분	베이비붐세대 (n=3,347)		전기밀레니얼세대 (n=873)
	1991년 기준	2017년 환산 화폐가치	2017년 기준
총소득	1,007,608	2,338,514	3,988,476
경상소득	960,753	2,229,770	3,861,384
근로소득	653,906	1,517,622	2,983,078
사업소득	264,043	612,806	567,382
재산소득	5,982	13,883	4,554
이전소득	36,822	85,460	306,370
비경상소득	46,855	108,744	127,092

*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함. 2017년 = 100.0 일 때, 1991년 = 43.088

베이비붐세대가 전기밀레니얼세대 연령이었을 때: 지출 비교

1991년 가계동향조사 vs.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단위: 원, 월평균)

구분	베이비붐세대 (n=3,347)		전기밀레니얼세대 (n=997)
	1991년 기준	2017년 환산 화폐가치	2017년 기준
가계지출	741,352	1,720,573	3,331,779
소비지출	604,021	1,401,846	2,654,522
비소비지출	137,332	318,727	677,256
세금	16,855	39,118	142,814
연금·사회보험료	14,800	34,349	262,510
이자비용	27,000	62,662	63,291
이전지출	78,677	182,597	208,640

*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함. 2017년 = 100.0 일 때, 1991년 = 43.088

베이비붐세대가 전기밀레니얼세대 연령이었을 때: 소비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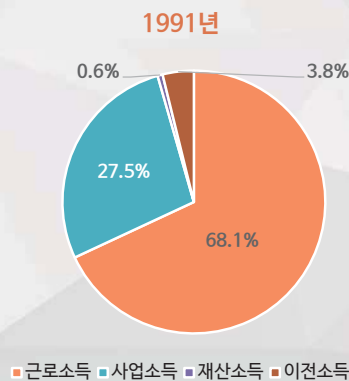
1991년 가계동향조사 vs.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단위: 원, 월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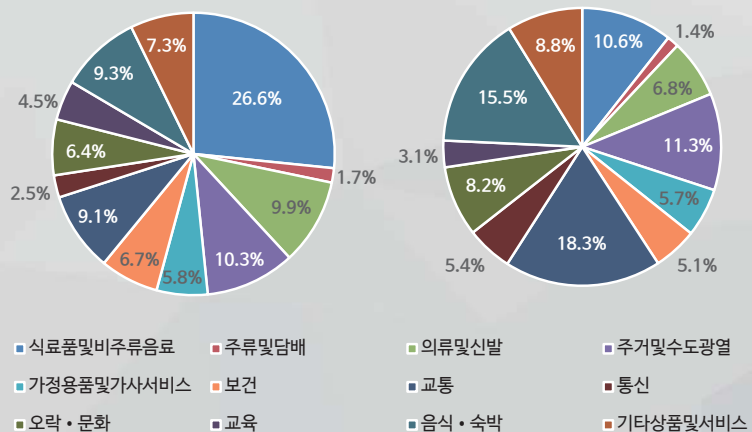
구분	베이비붐세대 (n=3,347)		전기밀레니얼세대 (n=997)
	1991년 기준	2017년 환산 화폐가치	2017년 기준
소비지출	604,021	1,401,846	2,654,522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60,754	373,087	282,583
주류 및 담배	9,968	23,134	36,225
의류 및 신발	59,519	138,136	179,883
주거 및 수도광열	62,001	143,894	298,847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5,245	81,799	150,148
보건	40,594	94,213	135,715
교통	54,897	127,408	484,510
통신	15,370	35,673	142,341
오락·문화	38,552	89,475	217,835
교육	27,391	63,570	82,239
음식·숙박	55,922	129,788	410,685
기타상품 및 서비스	43,808	101,671	233,512

*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함. 2017년 = 100.0 일 때, 1991년 = 43.088

경상소득 구성비 베이비붐세대(1991년) vs. 전기밀레니얼세대 (2017년)



소비지출 구성비 베이비붐세대(1991년) vs. 전기밀레니얼세대 (2017년)



X세대가 전기밀레니얼세대 연령이었을 때: 자산 비교

2006년 가계자산조사 vs.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단위: 만원)

구 분	X세대 (n=916)		전기밀레니얼세대 (n=1,650)
	2006년 기준	2018년 환산 화폐가치	2018년 기준
총자산	13,354	17,391	25,136
금융자산	4,711	6,135	9,732
저축액	3,049	3,971	4,772
적립 및 예치식저축	2,773	3,611	4,487
기타저축	276	360	285
전월세보증금	1,662	2,165	4,960
실물자산	8,643	11,256	15,404
부동산	7,885	10,269	13,637
거주주택	5,669	7,383	9,552
거주주택이외 부동산	2,216	2,886	4,085
기타실물자산	758	987	1,767

* 가계금융복지조사(2018)의 항목 분류에 준하여, 가계자산조사(2006)의 일부 항목을 재구성함.

*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함. 2018년 = 100.0 일 때, 2006년 = 76.785

X세대가 전기밀레니얼세대 연령이었을 때: 부채와 순자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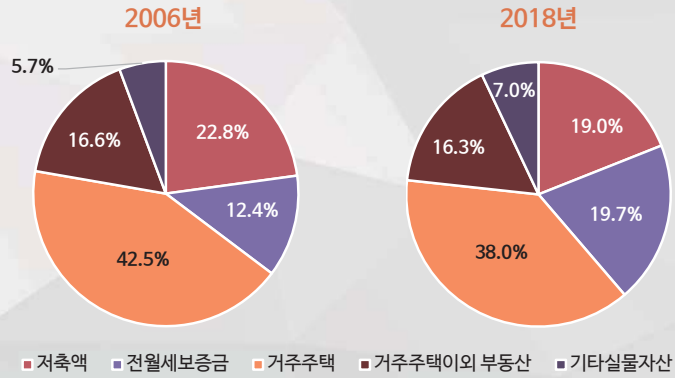
2006년 가계자산조사 vs.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단위: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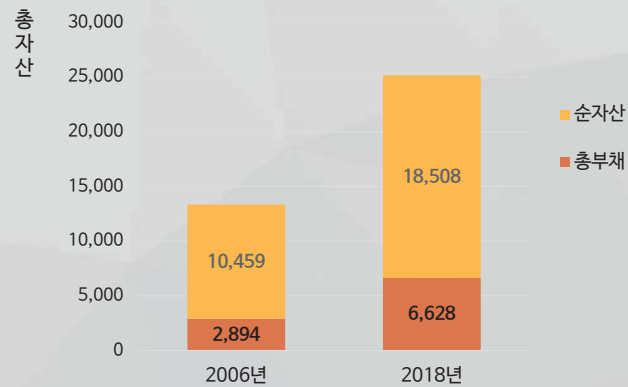
구 분	X세대 (n=916)		전기밀레니얼세대 (n=1,650)	
	2006년 기준	2018년 환산 화폐가치	구 분	2018년 기준
총부채	2,894	3,769	총부채	6,628
금융부채	2,354	3,065	금융부채	5,654
금융기관대출	1,894	2,467	담보대출	4,268
현금서비스	30	39	신용대출	1,013
마이너스통장	136	178	신용카드관련대출	34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	118	154	외상 및 할부미상환액	192
기타대출	175	227	기타대출	146
임대보증금	541	704	임대보증금	974
순자산	10,459	13,622	순자산	18,508

*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함. 2018년 = 100.0 일 때, 2006년 = 76.785

자산 구성비 X세대 (2006년) vs. 전기밀레니얼세대 (2018년)



자산·부채 규모 X세대 (2006년) vs. 전기밀레니얼세대 (2018년)



X세대가 전기밀레니얼세대 연령이었을 때: 소득 비교

2006년 가계동향조사 vs. 2017년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단위: 원, 월평균)

구분	X세대 (n=1,616)		전기밀레니얼세대 (n=873)
	2006년 기준	2017년 환산 화폐가치	2017년 기준
총소득	2,864,746	3,676,571	3,988,476
경상소득	2,732,887	3,507,345	3,861,384
근로소득	2,051,165	2,632,433	2,983,078
사업소득	467,860	600,444	567,382
재산소득	3,885	4,986	4,554
이전소득	209,978	269,483	306,370
비경상소득	131,859	169,226	127,092

*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함. 2017년 = 100.0 일 때, 2006년 = 77.919

X세대가 전기밀레니얼세대 연령이었을 때: 지출 비교

2006년 가계동향조사 vs.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단위: 원, 월평균)

구분	X세대 (n=1,616)		전기밀레니얼세대 (n=997)
	2006년 기준	2017년 환산 화폐가치	2017년 기준
가계지출	2,279,627	2,925,638	3,331,779
소비지출	1,815,159	2,329,547	2,654,522
비소비지출	464,468	596,091	677,256
세금	76,459	98,127	142,814
연금·사회보험료	130,273	167,190	262,510
이자비용	44,238	56,774	63,291
이전지출	213,498	274,000	208,640

*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함. 2017년 = 100.0 일 때, 2006년 = 77.919

X세대가 전기밀레니얼세대 연령이었을 때: 소비지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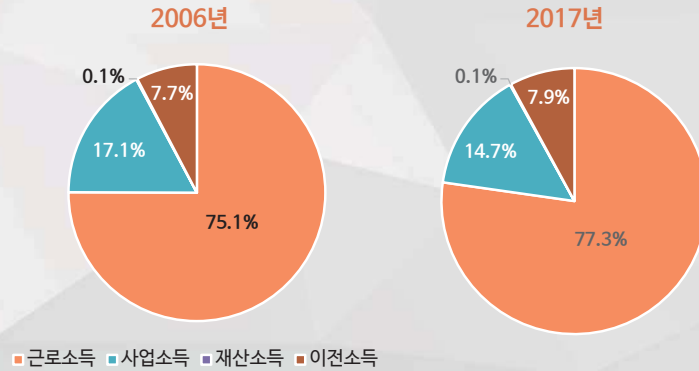
2006년 가계동향조사 vs. 2017년 가계동향조사(지출부문)

(단위: 원, 월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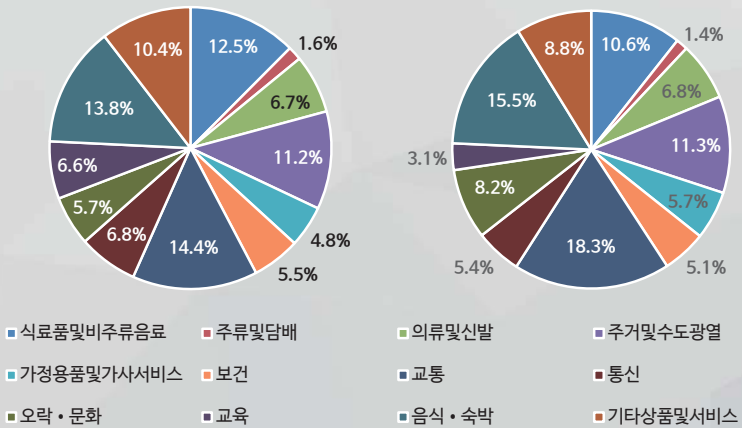
구분	X세대 (n=1,616)		전기밀레니얼세대 (n=997)
	2006년 기준	2017년 환산 화폐가치	2017년 기준
소비지출	1,815,159	2,329,547	2,654,522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26,253	290,370	282,583
주류 및 담배	28,998	37,215	36,225
의류 및 신발	122,288	156,943	179,883
주거 및 수도광열	203,884	261,661	298,847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86,476	110,982	150,148
보건	99,978	128,310	135,715
교통	260,706	334,585	484,510
통신	123,568	158,586	142,341
오락·문화	103,768	133,174	217,835
교육	119,420	153,262	82,239
음식·숙박	250,364	321,313	410,685
기타상품 및 서비스	189,457	243,146	233,512

* 소비자물가지수(CPI)를 적용하여 화폐가치를 환산함. 2017년 = 100.0 일 때, 2006년 = 77.919

경상소득 구성비 X세대 (2006년) vs. 전기밀레니얼세대 (2017년)



소비지출 구성비 X세대 (2006년) vs. 전기밀레니얼세대 (2017년)



주요결과, 그리고...

	1991년 베이비붐세대가 전기밀레니얼세대 연령이었을 때	2006년 X세대가 전기밀레니얼세대 연령이었을 때	2017년 2018년 전기밀레니얼 세대
가계수지지표 : 총지출/총소득	73.6%	79.6%	83.5%
부채부담지표 : 총부채/총자산	-	21.7%	26.4%

1991년, 2006년, 그리고 현재를 비교할 때, 지속적으로 ...

- 사업소득 비중 감소
- 소비지출 중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비중 감소, 음식 및 숙박 비중 증가, 교통비 비중 증가
- 자산 중 거주주택 비중 감소, 전월세보증금 비중 증가
- 부채부담 증가



인구구조변화와 보험산업변화

김세중 (보험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변화와 대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김세중
2019.4.17(수)
한국FP학회

2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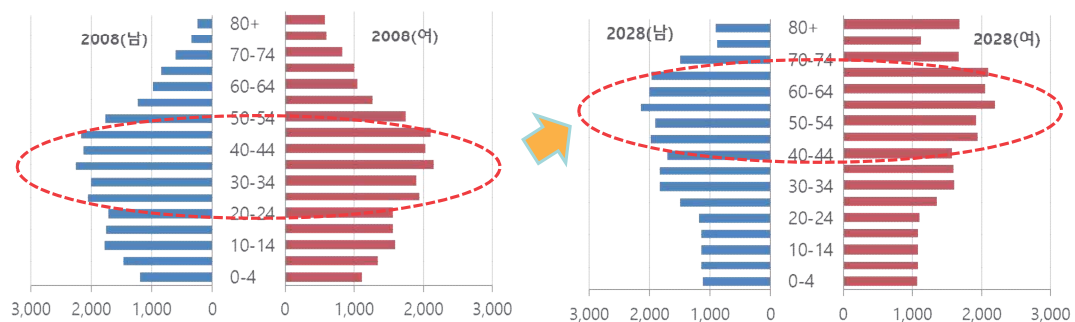
- I. 인구구조 변화와 사망률 개선
- II. 보험수요 변화
- III. 보험시장 현황 및 전망
- IV. 일본의 사례
- V. 맺음말

I. 인구구조 변화와 사망률 개선

1) 인구구조 변화

- 기대수명 증가뿐만 아니라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인구구조는 항아리형에서 역삼각형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음
- 보험상품의 주요 소비자군이 30~40대에서 50~60대 연령으로 이동

인구 피라미드 전망 (2008~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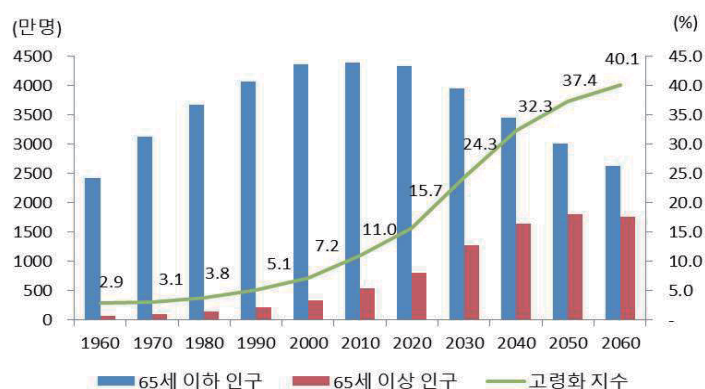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2) 고령화 심화

- 우리나라 65세 이하 인구는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65세 이상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65세 이상 인구나 65세 이하 인구의 비율로 계산되는 고령화 지수는 지속적으로 상승함
- 65세 이하 인구는 201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65세 이상 인구의 경우 급격히 증가하다가 2040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 보험 주소비층 인구 감소로 보험산업 위축 예상됨

우리나라 고령화 지수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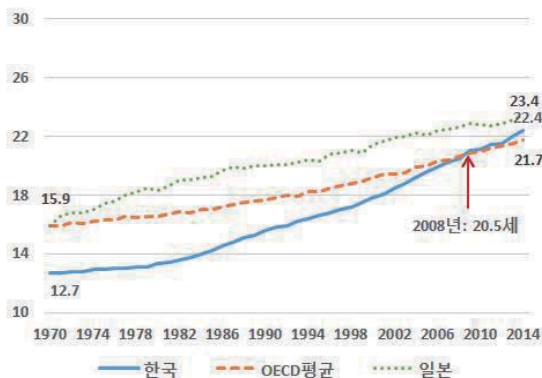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kiri 보험연구원

3) 60세 인구 기대여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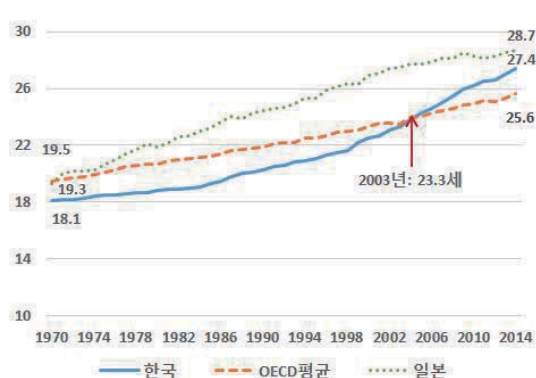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60세 인구의 기대여명은 남녀 각각 2008년과 2003년 OECD평균을 상회
- 대표적 장수국가인 일본의 수준에 근접해 있으며, 현 추세가 유지된다면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가 됨
- 기대수명의 증가는 사망위험에 대한 수요를 축소시키고 노후소득 및 노후건강 위험에 대한 수요를 확대할 것임

60세 남성 기대여명 추이



자료:OE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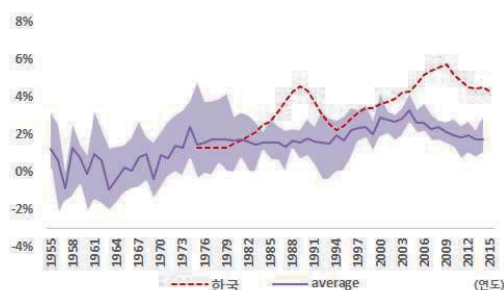
60세 여성 기대여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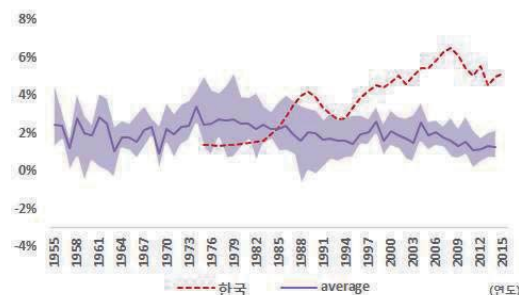
4) 사망률 개선률 비교

- OECD주요 장수국가와 사망률 개선정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0~60대에서 급격한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OECD국가 중 주요 장수국가는 2014년 기준 여성 기대수명 상위 10위 이내의 국가 중 사망률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6개국(일본, 프랑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노르웨이)으로 선정하였음
- 향후 주요국가 수준으로 수렴하여 개선도가 둔화될 가능성 존재함

60세 남성 사망률 개선률 비교



60세 여성 사망률 개선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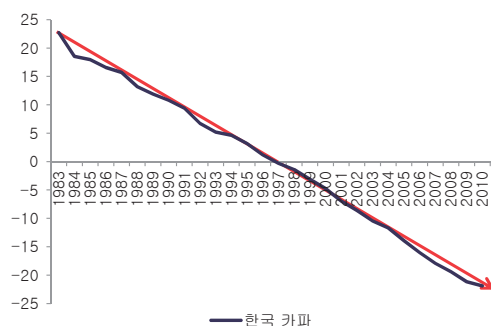
자료: 김세중(2017), "고연령 사망률 변화추이 국제 비교", 보험연구원

kiri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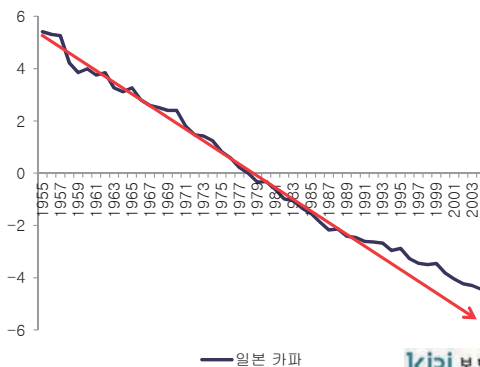
5) 한국과 일본의 사망률 개선 추이 비교

- 사망률 예측 모형은 과거 사망률 개선 추세의 미래 지속 가정
 - 우리나라는 데이터 기간이 짧고 사망률이 급격히 개선된 시기에 한정
 - 일본의 경우 1980년대 중반부터 사망률 개선에 구조적 변화 발생
- 우리나라의 사망률 개선 추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우리나라 사망률 지수 추이 (1983~)



일본 사망률 지수 추이 (19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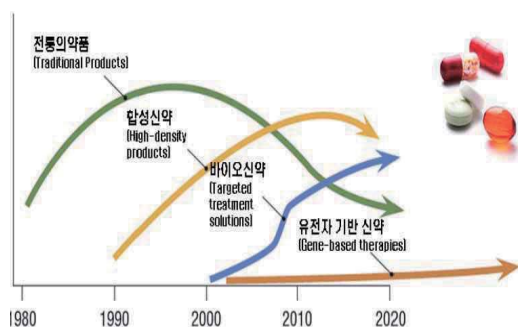


kiri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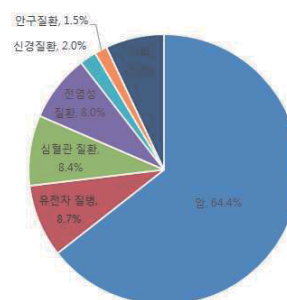
6) 사망률 개선 지속 가능성

-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은 사망률 개선 추세를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유전자 치료제는 난치성 질병의 치료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암, 유전자 질병, 심혈관질환 등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 사망률 추세의 불확실성은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를 확대하여 연금보험 상품 공급을 감소시킬 수 있음

신약개발 기술 발전단계



질병별 유전자 치료제 개발 임상 비중



자료: 김세중(2015), “난치성 질병 치료제 개발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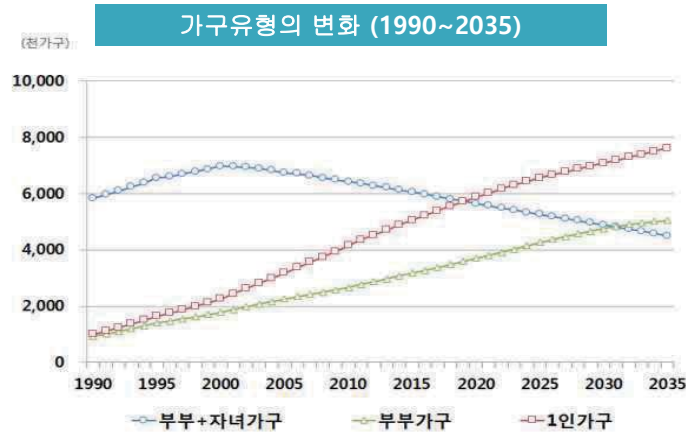
kiri 보험연구원

kiri 보험연구원

II. 보험수요 변화

1) 가구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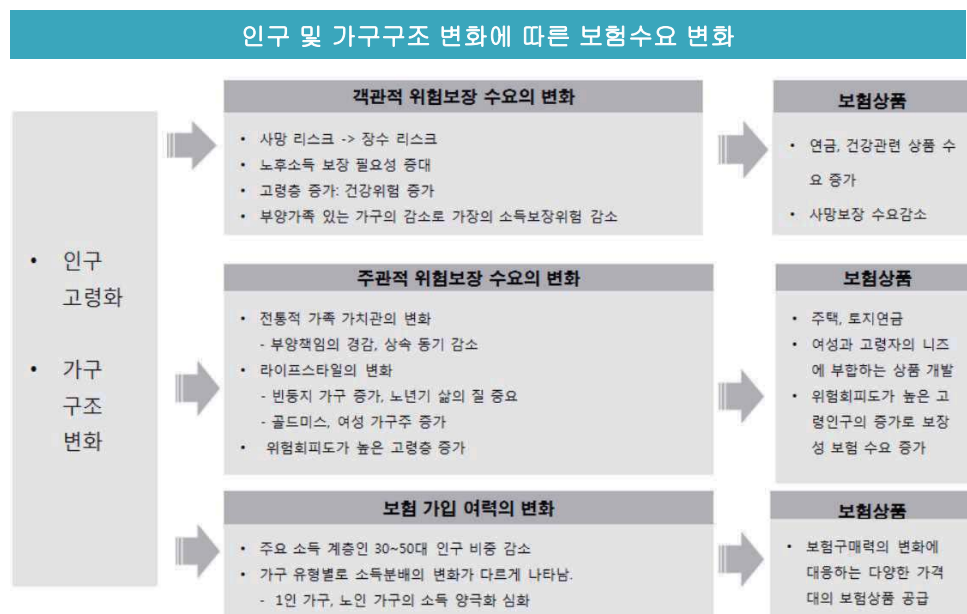
- 보험수요는 인구구조 변화 뿐만 아니라 가구구조 변화에도 영향을 받음
- 우리나라의 가구구조 변화 중 가장 주요한 변화는 1인 가구의 증가임
 - 1인가구는 1990년에서 2010년까지 4배 증가했고 2035년까지 8배 가까이 증가 전망
- 또한 가구주의 여성화와 노령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자료: 오승연, 김유미(2015),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kiri 보험연구원

2) 보험수요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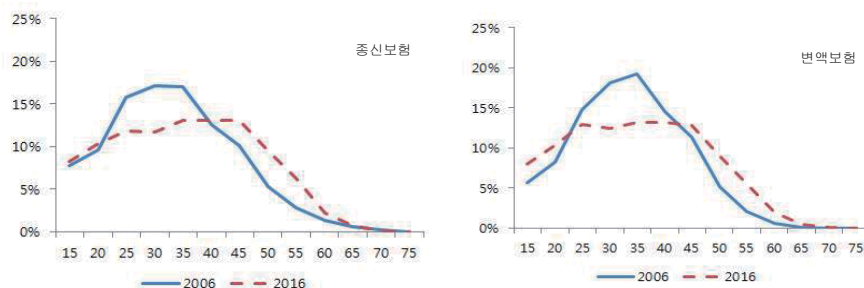
자료: 오승연, 김유미(2015),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수요에 미치는 영향", 보험연구원

kiri 보험연구원

3) 보험가입자 연령 변화 (종신, 변액)

- 가장 사망 위험을 담보하는 종신보험에서도 가입연령 상승이 나타나고 있으며, 위험자산 투자 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변액보험 가입연령도 상승하는 등 생명보험 가입연령 증가는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생명보험 종목별 신계약 연령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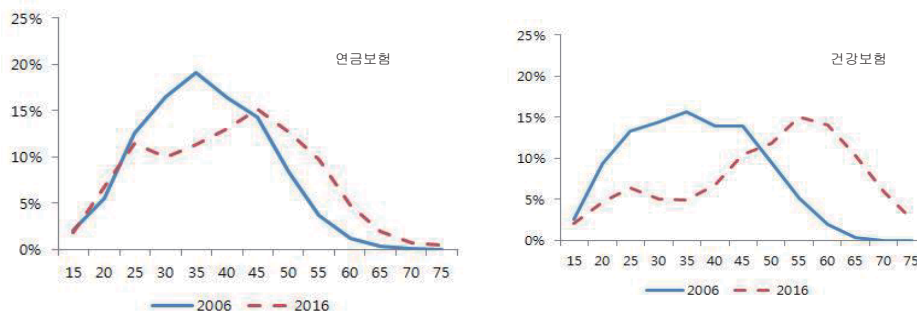
자료: 김세중(2018), "생명보험 가입연령 변화와 대응방안", 보험연구원

kiri 보험연구원

4) 보험가입자 연령 변화 (연금, 건강)

-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의 신규 가입연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 건강보험 주 가입연령은 2006년 30~40대에서 50~60대로 상승하였으며, 연금보험의 경우에도 2006년 30~40대에서 2016년에는 40~50대가 주 가입연령으로 부상함

생명보험 종목별 신계약 연령 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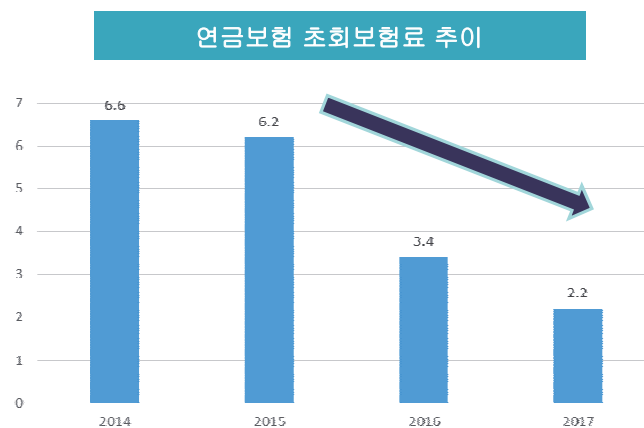
자료: 김세중(2018), "생명보험 가입연령 변화와 대응방안", 보험연구원

kiri 보험연구원

III. 보험시장 현황 및 전망

1) 연금보험의 신규가입 감소

-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으로 연금보험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수년간 연금보험 판매는 급감하고 있음
- 연금보험 판매 감소에는 판매수수료 감소, 세제혜택 축소 등의 이유도 있으나 회계제도 및 요구자본 제도의 영향에 따른 소극적인 상품판매가 주 원인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2) 연금보험 신규가입 감소 원인

- 고연령 중심의 인구구조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 중 하나인 고령 인구의 사망률 개선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보험회사에 부담이 되고 있음
- 2022년부터 도입되는 신지급여력제도 K-ICS에서는 보험회사가 연금보험의 장수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을 쌓도록 하고 있음
-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보험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연금보험 계약자의 고령화 및 고연령 인구의 사망률 예측 어려움 등으로 보험회사는 소극적으로 상품공급에 나서고 있음
- 이에 따라 연금전환이 가능한 종신보험 등 하이브리드형 상품의 공급이 증가하였음
- 연금보험의 경우 일부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kiri 보험연구원

3) 사망률 개선추세 예측의 어려움

- 보험회사는 보험료 산정 시 사망률의 적절한 예측이 중요함

	제4회 경험생명표			제5회 경험생명표		
	1977~1997	1997~2012	오차	1981~2001	2001~2012	오차
60~64세	2.88%	4.51%	1.63%	3.24%	4.84%	1.59%
65~69세	2.62%	4.46%	1.84%	3.02%	4.80%	1.77%
70~74세	2.01%	3.70%	1.69%	2.51%	3.95%	1.43%
75~79세	1.93%	2.82%	0.89%	2.09%	3.16%	1.07%

	제6회 경험생명표			제7회 경험생명표		
	1984~2004	2004~2012	오차	1987~2007	2007~2012	오차
60~64세	3.68%	4.59%	0.92%	3.98%	3.44%	-0.53%
65~69세	3.36%	4.96%	1.61%	3.59%	4.87%	1.29%
70~74세	2.87%	3.86%	0.99%	3.07%	3.33%	0.26%
75~79세	2.28%	3.10%	0.82%	2.59%	2.87%	0.28%

주 : 오차=실제 사망률-경험생명표 상의 사망률 개선률
자료 : 통계청의 간이생명표(5세간격별)를 토대로 직접 계산함.

kiri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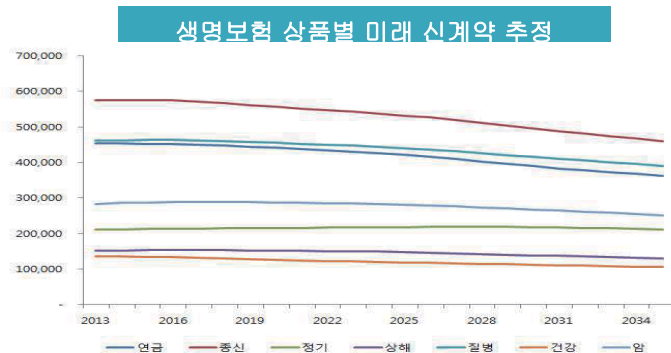
4) 고연령 보장상품 개발의 어려움

- 현재 보험상품 개발은 대부분 30~40대를 주 소비층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층을 위한 보험상품은 일부 소개되고 있는 상황임.
- ✓ 사망보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장성 보험 가입 연령은 60세 이하이며, 주 가입 연령대는 30~40대임.
- ✓ 기존 보험상품은 고연령 가입자가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환 등으로 정상적인 언더라이팅을 통과할 수 없어서 가입이 어려웠음.
- ✓ 최근에 들어서야 언더라이팅을 완화한 고령층 전용 보험상품이 소개되기 시작하고 있음.
-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통계자료가 충분하지 못하여 요율의 불안정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할증이 가능하지 않아 상품개발이 어려움.
- ✓ 고령층 대상 보험상품을 개발하지 못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험 부족으로 보험회사들은 충분한 경험 데이터를 축적하지 못하고 있음.
- ✓ 또한 미래의 보험요율 변동성이 높으나 이에 대한 충분한 안전할증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가능성이 높은 점도 상품개발에 어려움으로 작용함.

kiri 보험연구원

5) 보험 계약규모 축소 전망

- 오승연 외(2015) 분석결과 지난 10년간 인구 및 가구구조의 변화는 납입보험료를 30% 정도 감소시킨 것으로 분석됨
- 김석영, 김세중(2015)는 보험회사의 상품이 30~40대를 주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고 이러한 전략에 변화가 없을 경우 총인구 감소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로 지속적인 신계약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
- ✓ 인구구조 변화로 30~40대 인구가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증가하여 신계약은 2035년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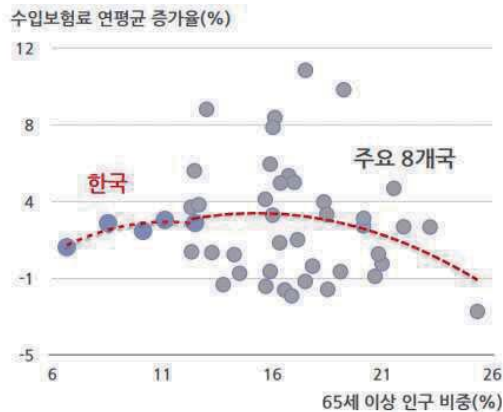
자료: 김석영, 김세중(2014),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kiri 보험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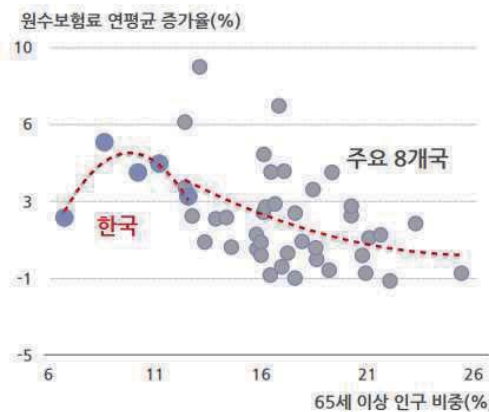
6) 선진국의 사례

- 수입보험료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
 - 고령인구가 증가하면 경제성장률과 금리가 하락하고, 신규수요가 감소하는 시장포화가 심화되기 때문에 성장성이 둔화됨
- 성장성이 둔화되면 수익성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음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65세 이상 인구 비중과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자료: 보험연구원(2019),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보험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발표자료

KIRI 보험연구원

IV. 일본의 사례

1) 일본의 고령화와 보험산업

- 유엔은 고령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함
-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 진입 후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하였고, 일본의 경우 197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 후 1994년 고령사회에 진입함
- 일본 또한 고령사회 진입 후 보험산업 위축이 시작됨

일본 가구당 생명보험납입보험료



자료: 윤성훈, 김석영(2018),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보험연구원

kiri 보험연구원

2) 일본 보험산업의 대응

- 일본의 경우에도 인구구조 변화 뿐 아니라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가구구조 변화에 직면하였으며, 특히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에 따른 새로운 보험수요가 발생함
- 일본 보험산업은 고령층 및 여성에 특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상품단순화 및 시장세분화, 계약유지 노력 등을 통해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에 대응함



자료: 윤성훈, 김석영(2018),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보험연구원

kiri 보험연구원

3) 다양한 가입연령과 보장기간 제공

- 고령층의 건강보험 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70~80세의 고연령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장기간도 종신까지 보장하는 상품이 판매됨
- 이는 일본의 경우 고연령 위험률에 대한 충분한 마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임

일본 보험상품 예시

	담보	가입연령	보장기간
메이지아스다	입원, 수술, 통원치료, 재해	12~70	종신
부국생명	재해입원, 질병입원, 입원, 수술, 방사선치료	15~75	종신
미즈이	부상질병입원 및 수술등 상해	종신남: 30~75	종신
지브롤터	입원, 수술, 고도장해	0~75세	정기형: 10년, 15년, 50세~80세만기(5세단위)
소니	재해입원, 질병입원, 수술, 사망	3세~75세	종신
메트라이프 알리코	질병입원, 재해입원, 수술, 사망	만3세~만80세	종신
약사	입원, 수술, 방사선치료	0~75세	종신

자료: 김석영, 김세중(2014),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보험연구원

kiri 보험연구원

4) 고독사보험과 같은 틈새상품 등장

- 일본 보험회사는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주택 임대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개발함
- 세입자가 고독사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1차적으로 가재도구 처분, 방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며, 2차적으로 신규 세입자 유치의 어려움, 임대료 인하 요구 등에 의한 손실이 발생함
- 아이아루(アイアル) 소액 단기보험은 2011년 고독사 보험을 출시하였으며,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회복 비용에 최대 100만엔을 지급하고 사고 후 1년간 임대료 하락 손실에 최대 200만엔을 보상하는 상품이며, 보험료는 가구당 3,300엔 정도로 저렴함

일본 고독사 관련 통계

구분	평균 수명	고독사 평균연령	비중	발견까지의 기간
남성	80세	60세	80%	23일
여성	87세	58세	20%	7일

자료: 少額短期保険協会, 孤独死の現状レポートの概要, 2016.

kiri 보험연구원

V. 맺음말

1) 보험산업의 대응 방안

- 인구구조 및 가구구조 변화는 보험산업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보험수요 변화에 대해 상품 구성 및 판매채널 변화, 신상품 개발 등으로 보험수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화는 연금, 건강 등에 대한 공적 사회안전망의 축소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공적부문을 보완하는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해야 함
- 고연령 사망률 및 발병률의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위험관리 기법을 정교화 하여 고령층의 보험수요에 충분한 상품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보험산업의 위축에 대응하여 기존 보험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등 유지율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함
- 4차 산업 혁명에 따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새로운 위험을 발굴하고 소비자 맞춤형 상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 신규시장 확대 노력도 병행해야 함

감사합니다

